

완도, 해조류 블루카본 시대 선도

완도군이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 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일명 ‘완도형 바다연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3차 총회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된 자료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돼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서 가치를 입증받게 된 것이다.

해조류가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최종 확정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군은 향후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 추진에 관한 전략도 세웠다.

완도가 ‘글로벌 해조류 블루카본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조류 블루카본 전담 TF팀, 탄소 흡수 벨트 협의회 등을 구성해 중앙부처, 지방 정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가와 정책·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의 핵심 소재로서 해조류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과 2026년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산업 박람회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완도의 청정 해양환경과 친환경 양식 체계를 기반

으로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 특히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으로 해상풍력단지 내 유류 해역 활용 ‘블루카본 특화 양식 해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조류 종자 수급·공급센터, 탄소 흡수 인증·거래 및 정산 체계(MRV)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조류 블루카본 경제 생태계 기반을 완도에서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IPCC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하는 것은 해조류의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다”며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해조류 블루카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국제기구 IPCC서 해조류 신규 탄소흡수원 산정 합의
탄소 거래 기반 ‘바다 연금’ 추진...“다각적 정책 마련”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 관계자들이 완도군 해조류(미역) 양식장을 방문한 모습.

완도 다시마 양식장 전경

목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만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제설장비 확충 등 대책 수립

목포시는 최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2026년 3월 15일)을 앞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수립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9개 협업 부서장이 참석해 기상상황별 비상근무체계와 단계별 제설 장비 투입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어 각 부서의 대설·한파 대비 추진사항과 전년도 미비점, 개선된 주요 대책 등을 공유했다.

시는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예·경보 발령과 상황전파를 신속히 수행하고, 단계별 비상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등 대설과 한파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

고, 시설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설 대응체계와 관련해 시는 주요 간선 도로에 제설차량 6대를 투입해 집중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에는 소형 제설장비(블로워)와 제설재를 사전 배부해 신속한 제설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제설제 비축과 염수 분사장치 작동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후주택·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점검과 거주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파 대비를 위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강진 불금불파’ 감동 속 피날레...내년 기약

방문객 1만2000여명·매출 2억여원 달성
싸이버거 공연·반값이벤트·경품행사 호응

강진군의 대표 금·토요일 행사인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가 최근 피날레 특별행사를 끝으로 2025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는 혹서기를 제외한 4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4회 운영, 1만2205명의 방문객과 약 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불금불파’는 강진군 병영면의 고우 먹거리인 돼지불고기에 이야기를 얹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지역 밀착형 야간 문화행사다.

특히 상반기에는 ‘강진 반값여행’ 정책과 연계된 관광 혜택이 더해지며 많은 외

지 관광객이 몰려 큰 활기를 띠었고, 병영시장 일대가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반면 하반기에는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홍보·할인 혜택이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피날레 특별행사는 한 해 동안 불금불파를 사랑해 준 군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풍요로운 추수철을 함께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병영, 작전, 성정, 읍천면 등 북사면 주민들의 흥겨운 무대와 특별초청가수 ‘싸이버거’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싸이버거는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싸이버거 공연 모습.

폭발적인 에너지로 현장을 장악해 “정말 재밌는 공연이었다”는 찬사를 이끌어냈으며, 주민 공연은 따뜻한 정과 흥이 넘치는 무대로 피날레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 현장에는 청년가게, 장육상가, 농부·할머니장터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해남, 입학 축하금 확대 지원
중·고등학생 대상 1인 30만원

해남군교육재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군 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개정, 기존 초등학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2025년 입학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지가 해남군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3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이며, 지역 내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77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나머지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8~19일 해남군교육재단에서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해남=성정수 기자

PRIMUM LIGHTING SYSTEM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엔 진우엘텍!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를 통해 고객은 조영의뢰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 | 03
제품
생산 | > | 04
직접
시공 | > | 05
유지
관리 |
|---------------------|---|---------------------|---|----------------|---|----------------|---|----------------|

본사: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